

#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산다는 것

김 창 남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학 교수직의 말석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2년도 채 안 되지만 강사 생활로 먹고 산 것이 10년 남짓 되니 이력 저력 내가 대학 사회의 언저리에 발을 붙인 지도 꽤 되는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 강사와 교수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그런 사정을 잘 모르는 주위의 친지들은 강사 시절에도 날 교수라 불러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공연히 낯이 붉어지고 마땅히 몸들 바를 몰라 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강사 시절, 대학 교수에 대한 내 감정은 부러움과 질시가 섞인 다소 모순적인

것이였다. 우선 나는 교수가 너무 부러웠다. 경제적 안정과 넉넉한 시간,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그래서 사회적 발언과 행동에 대해 그만큼 자유와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내심 나는 대학 교수를 경멸했다. 알량한 지식으로 텅없는 권위만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만한 자유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회적 발언과 행동에 인색한 사람들, 학문적 정진보다는 주어진 기득권을 즐기는 데만 골몰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다. 글썽 모르긴 해도 지금도 많은 강사들은 나를

포함한 대학 교수들에 대해 그런 식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교수가 되고 나서 나는 그동안 대학 교수에 대해 내가 품고 있던 생각이 긍정적인 면이건 부정적인 면이건 결코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 교수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진정한 대학 교수의 상인가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다. 아직 햇병아리에 불과한 주제에 무슨 결론이 있겠는가. 다만 내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수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사회 집단으로서 지식인에게 부과되는 책무가 아직도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결코 안정적인 사회가 아니다. 불과 수십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서구의 수백 년에 해당하는 근대화의 과정을 겪었고, 지금 다시 빠르게 탈근대를 향해 달려가는 혼란의 와중에 있다. 사회가 혼란하고 불안정할수록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는 그만큼 많아진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의 방향을 잡아가고 전망을 찾아가는 일이 지식인들의 일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사회적 의무감도 못 가지는 사람이라면 이미 지식인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반드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회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묵

묵히 자기 영역에서 학문적 정진을 수행하는 것도 지식인의 중요한 몫이다. 다만 그러한 학문적 행위가 학문 영역의 폐쇄 회로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어떤 학문적 과제도 사회적 의미망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행위에는 반드시 크든 작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의미 부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 교수들은 단지 학문에만 몰두하도록 용인되지 않는다. 나만 해도 불과 2년짜리 햇병아리 교수에 불과하지만 온갖 사회적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강연 요청, 글 청탁,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발언 요구, 사회 단체나 모임 참여 요구, 이름을 빌려 달라는 요구, 돈 좀 내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요구들의 대부분은 분명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필요한 일이다.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지식인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다. 그러니 이런 저런 요구들 속에서 할 일, 못할 일을 가려내고, 하기로 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나같은 햇병아리가 그 정도니 다른 분들이야 오죽 하겠는가. 하긴 그런 것도 대학 교수가 지식인으로서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지도 모른다. 그만큼 할 일이 많으니까 사회적으

로 그 권위와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 아니겠는가. 누구 말마따나 '불행한 시대를 사는 지식인의 행복'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른바 세계화니 국제 경쟁력이니 하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 앞에서 대학 교수들은 또다른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교수들도 경쟁해야 한다, 경쟁해서 학문적 업적이 뒤지는 교수는 탈락시켜야 한다, 외국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야 경쟁력 있는 교수가 될 수 있다, 무슨 대학 교수들은 일 년에 논문을 몇 편 발표한다더라 등등. 말인즉슨 옳은 말이다. 교수 사회에서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학술적 업적이 쌓이고 또 외국 학술지에도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 학문의 수준을 과시할 수 있다면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특수한 역할에 대한 고려는 담고 있지 않다. 교수들이 할 일이 많으니까 학술적으로는 좀 덜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할 일이 많은 만큼 연구할 문제도 많은 것이고 그만큼 학문적 성취에 정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학문적 성취에 의해 한국 사회가 그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저 외국 학술지에 몇 편 발표했는지 여부를 가리자는 뜻은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도대체 내가 속해 있는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외국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어야 하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저런 연유로 나 역시 외국 학술지에 발표할 논문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논문이 국내의 다른 지면에 발표하는 글보다 더 낮게 평가받아야 할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한다. 문제는 그런 식의 경쟁력 담론들이 자칫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수가 마땅히 가져야 할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폄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이 어느 정도 '완성된' 사회라면, 그래서 더 이상 지식인에게 부여되는 과도한 책무가 줄어들었다면 모르지만, 여전히 술한 거품과 술한 혼돈과 술한 모순이 혼재한 상황에서 대학 교수들이 그저 외국 학술지에 논문을 몇 편 실었는가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면 대학을 위해서든, 교수를 위해서든, 학문 자체를 위해서든,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요즘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이른바 세계화, 경쟁력 강화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좀 더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즘 세계화론의 득세는 마치 1960년대 근대화론이 일방적인 사회 발전의 모델로 강요되면서 어떤 다른 주장도 용인되지 않았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 근대화 자체가 너무나 급속하게 또 단선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술한 문제와 모순을 낳았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도 않은 상황에서 어느새 세계화의 구호  
로 포장된 탈근대화의 논리에 휩쓸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 세대의 전  
근대와 아버지 세대의 근대, 아들 세대  
의 탈근대가 혼재하는 복합중층적인 상  
황을 겪고 있다. 머지 않아 그같은 상황  
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지식인으로서  
대학 교수가 할 일은 우리 사회가 가능  
한 한 혼란과 갈등을 줄이면서 안정적으  
로 새로운 세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이고 실천적 차원의 노력일 터이  
다. 대학 교수들마저 맥없이 세계화 논

리에 휘말려 중심을 잃는다면 그거야말  
로 큰 일이다. 이래 저래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수로 살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  
니다. ■

---

김창남 /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  
학원 신문학과에서 언론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문화평론가이자, 월간 『말』 기획위원, 『씨네21』 편  
집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삼의  
문화, 희망의 노래』,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TV  
를 읽읍시다』(공저),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  
션』(공저), 『노래 1, 2, 3, 4』(공저) 등이 있다.